

냉전기 太平洋지역 美·蘇간 해군력 경쟁 *

- 해양지정학의 인식 변화를 중심으로 -

정광호**

1. 서론
2. 냉전기 미국의 태평양 지역에 대한 지정학적 인식
3. 미국의 태평양 지역 방어적 해양전략
4. 소련의 해군력 증강과 미국의 공격적 해양전략
5. 결론

1. 서론

19세기 말 미국의 북아메리카 대륙 통합은 미국에게 지리와 정치적 인 측면에서 태평양이라는 새로운 지역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가져다

* 이 글은 정광호, 『미국의 태평양 해양전략 전개에 관한 연구: 도전국가의 핵심해양 공간 진출에 대한 대응을 중심으로』, 국방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171-249쪽을 수정, 보완한 것임을 밝힌다.

** 해군소령, 군사학 박사

주었다. 아·태 지역에 이르는 가장 쉬운 접근 방법은 태평양이라는 해상 교통로를 아무런 방해 없이 항해할 수 있고,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제해권을 확립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것을 가능하게 해줄 수 있는 수단이 해군력이고, 이것은 곧 미국의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된다는 논리가 미국의 국가정책으로 받아들여지면서 미국의 태평양 진출이 본격화 되었다.¹⁾

해양지정학적 관점에서 보면, 태평양이란 공간이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 특성은 시간과 거리의 관점에서 미국에게는 언제나 취약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이 아시아에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는 태평양이란 공간을 극복해야 되었다. 아시아에 군사력을 투사하기 위해서는 전진기지, 군수, 보급, 통신, 특히 태평양이란 광대한 공간을 돌파할 수 있는 공격적인 해군력이 필수 조건이었다. 이 같은 필수 조건들이 정치적 선택의 과정에서 취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다. 즉, 미국이 태평양 지역에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태평양이란 공간을 극복할 수 있는 군사전략을 설정해야만 했다.

한편, 공격과 방어라는 물리적인 힘대 힘의 메카니즘으로 본다면 미국의 지정학적 취약점은 역으로 미국과 대결하는 도전국가의 지정학적 유리함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 태평양 공간 돌파를 위한 시도는 미국과 대결하는 국가의 해상방어구역 설정을 통한 거부로 전개된다는 것이 태평양이란 지정학적 공간이 가지는 군사전략적 특성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태평양이란 공간은 지정학적 관점에서 국가전략 수립을 위한 정치, 그리고 해군력을 수단으로 하는 해양지리 공간의 확보라는 핵

1) 미국의 태평양 진출에 대한 해양력의 논리를 구축한 사람은 다름 아닌 머헨(Alfred Thayer Mahan, 1840~1914) 제독이다. 머헨은 바다와 이를 지배하기 위한 해군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특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거점과 해협에 대한 지배를 그 국가의 해양력을 결정 한다”고 주장하면서, 최초로 바다의 거리와 정치적 관계를 국가의 핵심이익으로 규정한 해양지정학의 출발이었다. Philippe Moreau Defarges, 『지정학 입문: 공간과 권력의 정치학』, 이대희·최연구 역, (서울: 새물결, 1997), pp.50-52.

심적 요소를 통해 국가 간의 도전과 이에 대한 대응이 이루어지는 공간임을 알 수 있다.

아래의 <표 1, 2>는 이 글의 논리적 전개를 위한 분석의 틀이다.

<표 1> 태평양 지역의 힘의 공백과 도전국의 대응

구 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힘의 공백 여부	
	x	○
도전국의 대응	현상 유지	핵심해양공간 진출

<표 2> 도전국가의 핵심해양공간 진출과 미국의 대응

구분	도전국가의 핵심해양공간 진출 여부	
	x	○
미국의 대응	안정적 현상 유지	현상 타파 및 도전에 대한 대응
	방어적 -> 방어적	방어적 -> 공격적

태평양지역에서 미국의 힘의 공백 여부는 도전국이 현상유지자적 입장을 취할 것이냐, 아니면 해군력 증강을 통해 핵심해양공간²⁾ 진출로 대응할 것이냐로 나타난다. 그리고 미국은 이러한 도전에 대응해서

2) 적의 안보에 위협을 가하거나 자국의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지역, 적의 군사력을 분산시키고 양면전쟁을 강요할 수 있는 지역, 그리고 공격 또는 방어 시 전진기지 및 완충지대로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을 '핵심공간(crucial sphere)' 이라 한다. 핵심공간은 전략적 요충지(chokepoint)와는 다르다. 전략적 요충지는 순수한 지리적 개념으로 수에즈 운하나 말라카 해협과 같이 지속적이고 고정적인 가치를 갖는다. 반면 핵심공간은 지리와 같이 고정적 개념 뿐 아니라 국가간의 역학관계를 반영하는 것으로 국제정치적 상황, 국가관계, 시기에 따라 그 가치가 변화한다. 박창희, "동북아의 '지전략적 핵심공간' 과 근대 일본의 현상도전," 『아시아연구』 (2010), pp.60-61. 태평양지역에서의 해양지리적 공간을 '핵심해양공간(crucial maritime sphere)' 이라고 할 수 있다. 핵심해양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그 지역에 대해 전략적 우위를 점하는 것이고, 경쟁국에 대해 공격과 방어 측면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유하는 것이다

태평양지역의 해양전략을 방어적에서 공격으로 변화시킨다. 즉, 공격과 방어의 균형에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다.

이 글은 냉전기 태평양지역에서 미·소간의 파워게임을 해양지리적 공간에 대한 인식을 주요 변수로 해서 공격과 방어의 균형이 어떻게 변하는 것인가를 분석하였다.

2. 냉전기 미국의 태평양 지역에 대한 지정학적 인식

가. 지리적 인식의 변화

미국에게 제2차 세계대전은 태평양에서 시작되었고, 이 전쟁의 종료 시까지 태평양은 미국의 주요 전장이었다. 독일 나치와의 싸움을 연합국이, 특히 소련 사람들이 버텼다면, 미국은 태평양에서 싸우면서 진격하여 단독으로 일본을 점령하고 또 전후 동아시아의 국제 관계를 포괄적으로 재조정했다.

태평양 전쟁 종료 후 미국은 지정학적 개념에 의한 해양전략을 발전시켰다. 가장 특징적인 것이 미국 서부의 인구 증가와 해외기지에 미군을 전진배치 시켜 영구히 주둔하는 미군을 만든 것이었다. 태평양 전쟁 시 필리핀과 괌 전진기지의 포기로 뼈아픈 전략적 실수를 경험해야 했던 미국은 시간과 거리라는 지정학적 요소를 태평양의 해양전략에 철저히 반영시켰다.³⁾ 강대국으로 등장한 미국은 일본, 독일, 영국, 이탈리아, 한국 등 프랑스와 소련을 제외한 모든 산업 강국의 영토에 광대한 해양군사기지 네트워크를 유지함으로써, 유럽에서의 힘의 균형과

3) 1960년대 무렵 총 150만 명의 미군이 35개 나라의 수백 개 기지에 주둔하고, 43개 국가의 안보에 대한 공식 원조와 70개 나라에서의 군대 훈련과 장비 공급의 책임을 지게 되었다. Chalmers Johnson, *The Sorrow of Empire: Militarism, Secrecy, and the End of the Republic* (New York: Henry Holt, 2004), pp.4-5.

이에 기초한 현실 정치의 운용이라는 기존의 대서양 중심주의에서의 변화를 추구하였다.

먼저 지리적 변화를 살펴보면, 전쟁 시기 동안 미국 서부의 이주민 수는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캘리포니아 인구가 1940년 690만 7,000명에서 1950년 1058만 6,000명으로 증가했고, 1962년에는 거의 두 배로 늘면서 캘리포니아가 최초로 뉴욕을 제치고 인구가 가장 많은 주가 되었다. 1950년대에 미국의 평균 인구 성장률은 26%였지만, 로스앤젤레스는 54%, 샌디에이고는 86%, 새크라멘토는 81%, 새너제이는 121%였다.

1950년부터 태평양 연안 주들과 서남부 지역은 국방 관련 계약에서 유일한 경쟁 지역인 뉴욕과 뉴잉글랜드를 포함한 미국의 모든 다른 지역을 압도했다. 제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 기간 동안 캘리포니아는 1급 계약에서 뉴욕과 미시간에 이어 3위였으나, 뉴욕이 11.6%였던 1958년 무렵에는 전체 계약의 21.4%로 첫째였고, 또 그때 6.9%의 텍사스와 5.8%의 워싱턴 주를 합치면 태평양 연안 주들과 텍사스는 모든 1급 계약의 1/3 이상을 차지했다. 그들은 레이건이 병력 증강 관련 지출을 코네티컷(5.8%)과 매사추세츠(5.1%)로 돌리게 했던 1987년까지도 32%를 점하고 있었다. 인구 당 수치를 보아도 태평양 연안 주들은 전국 평균 세 배를 차지했다.

하와이 또한 병력 수가 증가하였다. 전쟁 기간 동안 40만 명 이상의 군인들이 하와이에 주둔하거나 건강을 회복하였고, 한국과 베트남에서 벌어진 전쟁 기간 동안에도 하와이는 계속해서 주요한 휴식과 충전을 취하는 지역이었다. 인구 중에 백인 비율이 충분치 않다고 생각했던 미국 남부 하원들의 반대를 누르고 하와이가 주의 지위를 획득한 1959년 무렵, 군인들과 그 가족들은 전체 인구의 1/6을 차지했고, 인구의 1/4은 국방 관련 지출에 직접적으로 의존했으며, 수년간 섬의 16~25%가 군대에 의해 소유되거나 통제되었다. 미 국방부는 1980년경 하와이 전체 인구의 일곱 명 중 하나를 고용했고, 1990년에는 군인과 그 가족들

수가 전체 인구 110만 명 중 11만 7,216명이었는데, 이들은 하와이의 오아후 섬에 집중되어 있었다.⁴⁾

오아후 섬에 있는 태평양지구총사령관(CINPAC)은 미국 군사력의 중심부일 뿐만 아니라 미국이 전 세계적 권력을 갖게 해주는 근원지가 되었다. 총 사령관은 태평양사령부(PACOM)를 지휘하는데, 이 기구는 전체 태평양, 즉 일본·한국·동남아시아·중국과 인도에 대한 책임을 맡고 있고, 이는 전 지구 표면의 절반을 차지했다. 태평양사령부의 상징은 사나운 독수리가 북태평양 최상부에서 페리 제도의 모자 형태로 날개를 펼치고 있는 모습인데, 한쪽 발톱은 베이징 상공에 세우고 있었다.

냉전기간 중 소련과 가깝다는 사실 때문에 알래스카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1940년대 후반, 국방부는 페어뱅크스 인근에 장거리 폭격기 주둔을 위해 아이엘슨(Eielson) 공군 기지를 건설했는데, 이 기지는 개소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비행장이었다. 포트리처드슨(Fort Richardson)과 엘멘도르프(Elmendorf) 공군 기지 같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기지들은 다시 재정비 후 개선되었고, 세인트로렌스(St. Lawrence), 코디악(Kodiak), 셰미아(Shemya), 에이댁(Adak) 등의 섬에도 새로운 기지를 건설했다. 특히, 더치하버(Dutch Harbor)는 소련에 대항할 수 있는 잠수함 기지로서의 전략적 가치가 증대되었다.

후일 상원 의원으로 베트남 전쟁을 강력하게 반대하게 되는 주지사 그루어닝은 소련의 공격 시 조기 경보를 위한 광범위한 레이더망을 알래스카에 건설하고자 운동을 벌였는데, 이러한 레이더망은 이후 원거리 조기 경보선 또는 듀라인(DEW line)이라고 알려지게 된다. 3,000마일 길이의 듀라인은 4년에 걸쳐 총 2만 3,000명에 의해 건설되었다. 1957년 무렵부터 작동된 듀라인은 중간 중간에 자리한 황금으로 된 커다란 반구형 덮개를 가진 50개의 레이더 기지를 연결하고, 최종적으로 콜로라도 주 스프링스(Springs)에 있는 북미방위사령부에(NORAD)로

4) Robert C. Schmitt, *Hawaii Data Book* (Honolulu: Mutual Publishing, 2002), p.10.

연결된다. 그것은 원래 1955년 도입된 비행거리 4,250마일의 소련 장거리 폭격기 Tu-16 배저(Badger)를 감시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곧 미국 본토를 향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이 경고 시간을 20분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소련의 탄도미사일 추적을 위해 운용되었다.⁵⁾

한편, 1956년 맥클린(Malcom P. McLean)의 컨테이너의 발명은 태평양에서의 시간과 거리의 취약점을 개선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컨테이너 운송 덕분에 태평양 연안의 항구들은 미국의 서부 해안과 동아시아의 물자들이 모이는 집산지가 되었고, 뉴욕과 샌프란시스코 같은 오래된 중심지와 또 그곳에서 오랜 시간 지속되었던 방식을 대체해 버렸다. 그리고 컨테이너는 미국의 군수물자 수송에도 혁신적인 역할을 하였다. 1961년에 베트남에서 급속한 군비증강이 진행될 시, 캄란만을 분주한 컨테이너 항구로 변화시킴으로써 미군에게 있던 태평양 해상교통로의 커다란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 여기에 투입된 배들은 가지고 돌아올 것이 없었기 때문에 북쪽으로 가서 일본에서 수출품을 싣고 왔는데, 그 덕에 동아시아 항구 여러 곳에서 컨테이너 무역이 시작되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컨테이너 항구 20개 중에서 열세 개가 환태평양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⁶⁾

나. 군사전략적 인식의 변화

태평양 전쟁 종료 후 태평양에 대한 군사전략적 인식의 변화도 있었다. 전후 태평양이 미국의 호수로 뒀에 따라 미국의 태평양에 대한 지형학적 취약성을 군사전략적 관점에서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에 대한 논의들이 진행되었다.

5) Bruce Cumings, *Dominion from Sea to Sea: Pacific Ascendancy and American Power*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10) pp.613-614.

6) Marc Levinson, *The Box: How the Shipping Container Made the World Smaller and the World Economy Bigger*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6), p.275.

전후 태평양에 대한 통제는 지정학적인 해양적 특성 때문에 ‘해군의 문제(Naval Problem)’였다. 해상기지, 중앙 집중화된 정보 및 경보 시스템, 평시 전략 물자의 비축 등의 문제들이 제기되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전략적 인식은 해상전진기지의 활용과 향후 태평양에서 미국의 잠재적 적국에 대항하기 위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한 ‘기동타격력’, 즉, 항공모함 기동전단을 구성하는 ‘기동군’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었다.⁷⁾

포레스털(James V. Forrestal, 재임기간 1940~1944) 해군성 장관은 전후 미국은 태평양에 대한 통제를 위해서는 해상기지와 항공모함의 항공력의 중요성을 주장하였다. 포레스털은 태평양에서 행동의 자유와 동아시아에서의 미래의 적으로부터 미국의 안보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공·해전투력(air-sea power)’을 기반으로 하는 ‘방어적 썩기전략(defensive wedge strategy)’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포레스털은 태평양에서의 해양우세 확보가 미국의 국가안보와 경제적 번영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남태평양의 미크로네시아가 자신의 방어적 썩기전략을 실행할 수 있는 ‘기동방어경계 개념(mobile defensive perimeter concept)’의 핵심적 요소라고 하였다. 그는 “만약 태평양 전쟁 시 미크로네시아 제도가 미국의 수중에 있었다면, 진주만 기습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고 하면서 미크로네시아는 미국이 무조건적으로 확보해야 되며, 미국의 공격적인 항공모함 기반 전력을 운용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전략적 거점이라고 주장했다.⁸⁾ 즉, 포레스털의 방어적 썩기전략은 태평양에서 적의 위협에 대응해, 해상전진기지의 확보와 항모기동전력의 공해합동 전력을 이용

7) Hal M. Friedman, *Governing the American Lake: The US Defense and Administration of the Pacific, 1945-1947* (Michigan: Michigan State University Press, 2007), pp.83-85.

8) Hal M. Friedman, *Creating an American Lake: United States Imperialism and Strategic Security in the Pacific Basin, 1945-1947* (Westport, Conn: Greenwood Press, 2001), pp.13-16.

하여 신속히 대응하는 전략으로 태평양에서 미국의 지정학적 취약점을 상쇄시키기 위한 전략이다.

1947년 태평양 함대사령관이었던 니미츠 제독은 항공모함의 항공력에 대해 절대적인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태평양의 통제를 위해서, 다양한 해상플랫폼을 보유하는 ‘균형함대(balanced fleet)’ 보유를 주장하기도 했다. 작전사 부사령관이었던 혼(Frederick Horn) 제독은 전후 미국이 태평양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태평양의 주요 전략적 기점에 최소한의 해상전진기지만 있으면 되고, 나머지의 역할은 항공모함의 기동부대가 그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고 하였다.

한편 킹(Ernest J. King) 제독은 혼 제독의 태평양에서 최소한의 해상기지의 역할론을 부정하면서, 미국이 태평양 전쟁 시 구축했던 ‘기지 시스템(the system of bases)’은 전후 태평양에서 미국의 군사력 중 ‘핵심구조’라고 하면서 해상전진기지의 중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태평양 지역은 미국의 해군력에 의해서 방어되어야 하는 해양전장이라고 했다.

홀시(William Halsey) 제독은 태평양에서 좀더 공격적인 미 해군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헬시 제독은 미국이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보였던 이타주의(altruism)와 제2차 세계대전 전, 태평양에서 일본의 도전을 워싱턴 체제를 통해서 대응하려고 했던 미국의 선택은 전략적 실패라고 하였다. 그는 전후 태평양에서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보물(tangible and intangible treasure)’을 위해 미국은 강력한 군사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미국은 적이 행동하기 전, 적의 ‘해·공 전투계획(sea-air plan)’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해군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그는 태평양에서의 군사력 투자를 위해 창끝 역할을 할 수 있는 강력한 미 해병대의 필요성을 역설하였고, 태평양 전진기지의 합병을 주장하였으며, 해군이 추가 되는 육·해군의 통합된 작전통제권 보유를 주장하였다.⁹⁾

9) Hal M. Friedman, *Ibid.*, 104.

이와 같이 냉전기 들어서 미국은 태평양 연안 지역의 인구 증가로 인한 경제발전, 해군의 역할 및 해상전진기지의 강화, 운송수단 발전 등의 변화로 인해 태평양에 대한 지정학적 인식이 20세기 초보다, 시간과 공간적 측면에서 더 가까워졌다.

이 시기 미국의 태평양 해양전략은 방어적이었다. 대표적인 미국의 스윙전략(swing strategy)은 힘의 중심을 대서양에 집중시켜, 유사시 태평양의 해군력을 대서양으로 전개시킴으로써 태평양 지역에 힘의 공백을 야기 시켰다. 태평양 전쟁기와 마찬가지로 냉전기에도 미국의 태평양에 대한 정치적인 입장은 방어적이었고 이것은 곧 1970년대 들어서면서 소련의 태평양 진출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은 미국의 태평양에 대한 지정학적 인식 속에서, 냉전기 해양전략은 미국과 소련이 주도하는 이원화된 정치적 구도 속에서 발전되었다. 전후 도래된 해양전략은 양극화된 냉전체제를 수호하는 해양과 대륙을 근간으로 형성된 철저한 지정학적 구도에 의한 해양전략이었다. 냉전기 미국은 소련을 해양으로 봉쇄하는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대양해군(transoceanic navy)’을 건설했다. 한편 대규모 지상군을 근간으로 내륙에서 연안지역으로 영향력을 확대하던 소련은, 1970년대 들어서면서 머뭇 제독의 역사적 인식에 의한 지정학적 해양전략 개념을 채택해 소련의 지정학적 취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태평양으로 진출을 시도하였다.¹⁰⁾

10) Samuel P. Huntington, "National Policy and the Transoceanic Navy," *Proceedings* (May 1954), pp. 483-494.

3. 미국의 태평양 지역 방어적 해양전략

가. 태평양에서 위협의 부재와 중심(gravity)의 이동

태평양전쟁 후 미국은 정치질서의 통합과 상대적 안정, 외부 위협으로부터의 안보 확립이라는 지정학적 특성을 더욱더 확고히 가지게 되었다. 외부로부터의 이익에 대한 높은 의존, 대양을 가로질러 존재하고 있는 미국의 동맹국 등과 같은 안보적 환경은 미국의 군사전략에서 해양적 요소를 강화시켰고, 직접적인 본토의 방어보다는 군사력 투사에 더 비중을 두기 시작했다.¹¹⁾ 이것은 곧 전후 태평양과 대서양에서 미 해군의 역할은 무엇인가라는 개념으로 발전되었다.

각 군이 자군의 역할을 증대시키고 타군과의 내부적 경쟁에서 정체성을 확립시키기 위해서는 방어적 doktrin 보다는 공격적 doktrin을 추구함으로써 자군의 존재감을 높이려고 한다. 태평양의 주전장은 해상이고, 대서양의 주전장은 지상이다. 태평양의 군사전략은 해양전략을 핵심으로 하기 때문에 미 해군이 군사전략에서 역할 증대를 위해서는 대서양보다는 태평양에서 공격적 해양전략을 추구하고자 했다. 이것은 곧 군사력 투자 임무를 강조하는 doktrin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전후 일본의 패배는 태평양에서 미국에 대한 위협의 부재란 안보 환경이 조성되었고 나아가서 태평양에서 미 해군의 역할 축소란 결과로 나타났다.

전후 태평양과 대서양의 균형에서 미국의 전략적 중심은 대서양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1948년 체코슬로바키아 쿠데타, 베를린 봉쇄, 1949년 독일분단 등의 여파로 공산주의가 유럽으로 확산되었고, 소련이 미국의 잠재 적국으로 부상하였던 것이다. 미국은 소련의 위협으로부터 유

11) Robert S. Wood, "Fleet Renewal and Maritime Strategy in the 1980s," in John B. Hattendorf and Robert S. Jordan, eds., *Maritime Strategy and Balance of Power: Britain and American in the Twentieth Century* (New York: St. Martin's 1989), p.331.

립을 방어하기 위해 정치·경제·군사적인 방어시스템을 구축하였다. 트루먼 대통령은 1947년 3월에 공산주의 세력의 확대를 저지하기 위하여 자유와 독립 유지에 노력하고, 소수자의 정부지배를 거부하는 의사를 가진 여러 나라에 대하여 군사적·경제적 원조를 제공한다는 ‘트루먼 독트린’을 발표하였다. 이어서 경제적 지원으로 미 국무장관 마셜이 제안한 서유럽 국가의 ‘유럽부흥계획’인 ‘마셜플랜(Marshall Plan)’ 그리고 1949년 군사적 동맹체제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를 창설하였다.

한편 이 시기 태평양에서 미국에 대한 도전적 요소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1949년 중국 국·공 내전에서 공산당이 승리하였고, 1950년 2월에는 중·소 동맹이 체결되었다. 1950년 한국전쟁, 1964년 베트남 전쟁 등을 통해서 공산주의 체제가 점점 더 확산되는 안보적 환경이 조성되었다. 하지만 미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한 한국전쟁, 베트남 전쟁 등 일련의 사건들은 미국의 태평양의 제해권이 확립된 상태에서 지상전투 위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태평양 전쟁에서와 같은 미 해군의 공격적 해양전략이 필요하지 않았다. 주한 미군은 1949년 6월 30일까지 남한에서 철수하였고, 장개석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원조가 중단되었으며, 필리핀은 제 2차 대전 중에 미군에 소속되어 있던 군사조직(SCOUT)이 1949년 7월에 해체되었다.

이같은 미국의 방어적 자세에 대해서 한국, 대만, 필리핀 등 아시아 국가들은 나토와 같은 지역 군사동맹의 결성을 희망하여 1949년 3월 20일 퀴리노 필리핀 대통령이 ‘태평양 연맹(Pacific Union)’ 결성을 공식적으로 제기했다. 하지만 미국은 태평양 연맹이란 군사적 동맹체제에 대해서 반대의 입장을 나타냈다.¹²⁾ 미국이 반대하는 주된 이유는 유

12) 필리핀에서 태평양 연맹 문제가 제기되고 있을 때 미국은 동아시아에 대한 명확한 정책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1949년 3월 23일, 미 국무장관 애치슨은 버터워스(Butterworth) 극동국장에게 “태평양 연맹을 착수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며 현재의 환경에서 미국의 호의적인 지지를 얻을 수 없을 것”이라는 미 정부의 견해

럽 우선주의에 대한 결과로 귀착되는 것이었는데, 태평양 연맹에 대한 소련의 입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1949년 7월 22일 커크(Kirk) 소련 주재 미국 대사의 보고에 의하면 소련은 태평양 연맹에 미국이 참가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했다. 소련은 제안된 태평양 연맹이 본래적으로 취약한 것이기 때문에 소련에게 큰 위협이 되지 못할 것이며 오히려 소련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태평양연맹이 유럽에서 소련에 대한 미국의 중심을 태평양으로 분산시킬 것이며, 동남 아시아에서 영·미간의 대립을 심화시킬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¹³⁾

미국은 1950년 1월, 국무장관 애치슨(Dean Acheson)의 ‘방위선 발언(defense perimeter)’을 통해서 한국과 대만이 제외된, 알류산열도-일본-필리핀 등을 아시아의 최종 방어선으로 설정하였고, 류큐열도, 남방제도, 마르쿠스제도 등을 미국의 장기적 기지로 확보되어야 하며 적당할 시기에 국제적 인가를 획득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1950년 4월 미국은 중국 내전에 불간섭 원칙을 표명하였다.

20세기 초 미국이 취했었던 태평양에 대한 방어적 자세와 마찬가지로 전후 미국의 태평양 지역에 대한 이같은 정치적 방어주의는 향후 태평양 지역의 힘의 공백상태를 소련으로 하여금 인식하게 하여, 1970년 이후 소련 해군력의 전략적 중심을 태평양으로 이동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었다.

태평양에서의 미국의 방어적 자세는 곧 해군력의 약화로 이어졌다. 미국의 해군력은 한국 전쟁과 베트남 전쟁 시점을 제외하고 태평양 지역에서 소련과의 본격적인 해군력 경쟁을 실시했던 1970년대까지 지속적인 감소를 보이고 있었다. 트루먼 대통령(재임기간, 1945~1953)은 긴축재정정책과 국내 개혁에 치중하고 있었고 긴축정책은 태평양 해군력에 영향을 미쳤다. 1950년 미 해군은 공격용 항공모함 16척을 요청

를 필리핀에 알리도록 지시했다. 김정배, “냉전초기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태평양 연맹(Pacific Union)을 중심으로,” 『大丘史學』(제 65권), p.11.

13) 상계서, p.19.

했으나 단지 8척만을 확보할 수 있었다. 1951년 공군은 공격용 항공모함을 완전히 폐기시킬 것을 요구하였고, 육군은 항공모함을 4척으로 줄일 것을 요구하였으며 해군은 10척의 항공모함을 각각 요청하였다. 이에 해군은 6척의 운영예산을 배정받았고, 7번째 항공모함은 태평양에서 임시로 사용하기 위한 예산만 배당받았다. 한국전쟁이 발생했을 때, 단 1척의 항공모함만이 태평양에 배치되었다.¹⁴⁾

나. 대서양 중심의 해양전략 발전

전후 미국의 국가 전략은 ① 미 본토에 대한 직접적 공격 억제, ② 카리브해를 포함한 북·남미 방어구역 보호, ③ 중앙 유라시아 균형 유지, ④ 전 세계 정치·경제 이익 관리 등의 세계 패권국으로써 질서 유지를 위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었다.¹⁵⁾ 제 2차 세계대전 동안 유럽의 정치적 붕괴와 일본의 패배가 가져온 대서양과 태평양에서의 안보적 환경은 미 해군으로 하여금 위기 시 군사력의 간헐적 투입이 아닌 항구적인 ‘군사력의 전방배치(forward force deployment)’로 전환케 하였다.

태평양에서의 위협의 부재와 미국의 방어적 자세로 인해 힘의 중심이 대서양으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공격적 해양전략을 열망했던 미 해군은, 유라시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으로 대서양에서는 공격적 해양전략, 태평양에서는 방어적 해양전략을 추구하였다.

1948년 미국의 일반위원회(GB)는 미 해군의 임무를 ① 해양통제, ② 전진기지의 확보, ③ 동맹국과의 협력을 통한 소련 기지 공격과 전진기지의 거부 등으로 제시했다.¹⁶⁾ 소련에 대한 첫 번째 전쟁 계획은

14) George W. Baer, 김주식 역, 『미국 해군 100년사』(서울: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05), pp. 591-592.

15) Robert S. Wood, “Fleet Renewal and Maritime Strategy in the 1980s,” p.332.

16) Eric Grove and Geoffrey Till, “Anglo-American Maritime Strategy in the Era of Massive Retaliation, 1945-60,” in John B. Hattendorf and Robert S. Jordan, eds., *Maritime Strategy and Balance of Power: Britain and American*

1945년 ‘핀처 계획(Pincher Plan)’이다.¹⁷⁾ 이 계획의 주목적은 소련의 전쟁능력(war-making capacity)을 파괴시키기 위해 신속한 전략공중공격(strategic air offensive)을 감행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공군은 영국, 인도, 이집트에 전진기지를 구축하고, 해군은 해상교통로(SLOC) 보호 및 소련 해군을 봉쇄하는 방어적 임무를 수행하였다.

이 계획은 1947년 11월 미 합참이 승인한 ‘브로일러 계획(Broiler Plan)’, 1948년 ‘크랭크샤프트 전쟁 계획(Crankshaft War Plan)’, 1949년 ‘하몬 보고서(the Harmon Report)’로 발전하였다. 미국은 하몬 보고서에 소련의 70개 도시를 핵공격을 통해 파괴시킬 수 있지만, 이것은 소련 산업의 30~40% 정도만 파괴하고 소련 국민의 의지에는 막대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¹⁸⁾ 따라서 미국은 소련이 가지고 있는 전쟁능력의 핵심 요소들을 신속하고 강력하게 파괴시키는 것이 전쟁 계획의 핵심으로 판단하였다. 이 같은 공중에서의 핵공격을 통한 전쟁 계획은 해군의 임무를 방어적 임무로 제한시키고 있었다.

1949년 10월 미국은 소련의 유럽 침공에 대응하기 위해 ‘오프태클(Offtacle)’ 계획을 작성했다. 이 계획의 가정은 소련이 공격을 함으로써 미국에게 전쟁을 강요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미국은 동맹국과 협력하여 220발의 원자폭탄으로 104개의 도시를 공격하여 소련의 저항의지와 능력을 파괴시키고 대서양에서는 전략적 공격을 태평양에서는 전략적 방어를 수행함으로써 소련에게 미국의 전쟁 목적을 강요한다는 것이다.

아시아에서는 남중국과 남한이 소련에 의해 침략당할 것으로 간주했

in the Twentieth Century (New York: St. Martin's 1989), pp.275-276.

17) 미 합참은 핀처계획을 공식적으로 승인하지는 않았지만 향후 대소련 전쟁계획 발전에 초석이 된 보고서였다. Walton S. Moody, *Building a Strategic Air Force* (Washington: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96), p.137.

18) Gian P. Gentile, "Planning for Preventive War, 1945-1950," *JFQ* (Spring 2000), pp.69-70.

고, 영국의 식민지와 스리랑카, 필리핀은 영·미와 동맹을 맺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아시아의 방어에 있어서 핵심은 군사작전 기지로서 오키나와의 지속적인 이용을 보장하고, 일본을 방어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였다. 즉, 미국의 태평양 해양전략은 일본을 최종 방어선으로 하여 도서를 거점으로 공군과 해군에 의존하는 것이었다.

이 계획에서 해군의 역할은 ① 소련과의 전쟁 발생 시 핵폭탄을 사용하여 전략공중공격 실시, ② 공중공격(영국, 이집트, 오키나와)을 위해 공군 기지 및 작전해역 보호, ③ 동맹전략을 위해 핵심 지역(서유럽, 북서아프리카, 중동, 일본) 방어, ④ 합동 전선보급기지(북아메리카, 호주, 뉴질랜드, 남아프리카, 남아메리카) 방어, ⑤ 위에서 언급된 지역의 방어를 위한 해상·공중 교통로 통제 임무다. 이같이 오프태를 계획은 해군에게는 방어와 관련된 임무를 부여했다.¹⁹⁾

대서양 우선주의는 유사 시 미 함대 전력의 배치에서도 나타났다. 미국은 유사 시 다른 어떤 전구보다도 지중해에 항모공격전단의 신속한 배치를 계획했다. ‘D’일(1항모+4순양함+16구축함), ‘D+30’일(4항모+6순양함+28구축함), ‘D+90’일(7항모+6순양함+28구축함) 등의 순으로 축차적인 해군력 증강을 계획했다. 그리고 2년 이내에 전함 3척, 경항모 2척, 순양함 10척, 구축함 50척으로 구성된 상륙전력을 지중해에 배치 계획을 세웠다. 한편 태평양에서의 해군력 배치는 단지 일본과 오키나와를 방어하기 위해 순양함 2척(추후 4척으로 증강), 구축함 24척의 배치만을 계획하였다. 그리고 남태평양은 ‘안잠(ANZAM: 호주, 뉴질랜드, 말레이시아)’의 지휘 하에 통제되도록 계획하였다.²⁰⁾ 이 같은 전력 배치는 대서양 우선주의를 반영하는 것이었다.

19) Thomas H. Etzold and John L. Gaddis, “Containment: Document on American Policy and Strategy,” *Foreign Affairs* (Fall 1978), pp.70-71.

20) Eric Grove and Geoffrey Till, “Anglo-American Maritime Strategy in the Era of Massive Retaliation, 1945-60,” pp.278-279.

다. 전략의 스펙트럼 확대와 해양력 균형

1950년대부터 소련은 해양강국으로 성장하고 있었고 소련 해군에 의한 공격은 대서양뿐만 아니라 태평양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1954년 초에 소련이 가지고 있는 핵미사일 능력이 미국보다 우위에 있다는 징후들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었다. 소련은 적의 주요 목표물(항구)을 해상에서 핵미사일을 이용한 공격을 계획하고 있었다. 1955년 9월, 소련은 처음으로 해상에서 핵 운반이 가능한 미사일을 발사실험 했다. 실질적인 잠수함 발사 실험을 위해 소련은 1956~57년 세계에서 첫 번째로 '잠수함발사탄도유도탄(SLBM)' 발사가 가능한 'Z-V Class'를 생산했다. 1957년 8월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발사 성공, 2개월 후에는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호(Sputnik) 발사, 1958년에는 더 발전된 골프(G)-급, 호텔(H)-급 잠수함을 생산했다.

소련 해군력의 지속적인 증가는 그동안 미국의 전유물이었고 확신에 차있었던 해양통제에 대한 도전이었으며 미국의 해양력 우위를 잠식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미·소간 해양력 균형에 있어서 중대한 변화를 가져왔다.²¹⁾ 소련 해군력은 미국과 동등한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었고, 소련의 핵 및 재래식 공격을 억제하기 위한 대량보복 전략은 이상과 현실 간의 신뢰성에 대한 의심으로 표면화 되었다. 억제의 스펙트럼은 신뢰성이 보장된다면 재래식 군사력까지 포함할 정도로 확대되기 시작했고, 핵무기의 사용에 대한 좀 더 많은 유연성을 필요로 하였다. 소련의 도전 행위 스펙트럼이 확대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고려 요소들이 필요하게 된 것이었다.

1955년 12월, 미국의 '장기목표그룹(the Long Range Objective Group; OP-93)'은 첫 번째 보고서에서 소련의 강력한 핵전력과 직면하고 있는 미국은 제한된 핵무기의 사용을 제기하였고 강력한 재래식

21) Geoffrey Till, *Maritime Strategy and The Nuclear Age* (London: The Macmillan Press, 1984), p.68.

군사력의 증강 필요성을 주장하였다.²²⁾ 1955년 작전사령관으로 임명된 버크(Arleigh Burke) 제독은 대량보복 전략을 비판하였고, OP-93의 기능을 강화하였으며 1958년 1월에는 ‘1970년대의 해군(The Navy of the 1970 Era)’이란 새로운 보고서를 발표하였다.²³⁾ 이 보고서에서 향후 미 해군의 주 임무는 제한전쟁의 억제 및 수행이었다. 대량보복 전략의 폐기와 유연반응전략으로의 전환은 증강하고 있는 소련 해군에 대응하기 위한 미 해군의 공격적인 역할 확대를 가지고 오고 있었다. 즉, 광범위한 스펙트럼에 대응하기 위한 유연반응(flexible response) 전략이 필요하게 된 것이었다.

1960년 말부터 소련의 해군력이 본격적으로 증강되기 시작하면서 소련은 자국의 지정학적 취약점을 상쇄시키기 위해 핵심해양공간을 태평양까지 확대하기 시작하였다. 이 같은 소련의 핵심해양공간의 확대를 통한 해상거부능력의 증대는 미 해군으로 하여금 언제어디서나 해양통제를 수행할 수 있는 전방전개방어(forward defense)라는 유연반응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가져왔다.

미국 주도의 해양력 우세의 안보환경에서 소련의 해양력 증대를 통한 미·소간 균등한 해양력 균형의 출현은 미국으로 하여금 더 유연한 해양전략을 요구했다. 미국은 먼저 대서양에서 연합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새로운 안보환경에 적합한 해양전략을 발전시키기 시작했다. 1972년 ‘스트롱 익스프레스(Strong Express)’ 훈련은 대서양 연안 측면을 방어하는 유연반응에 초점을 맞춘 훈련으로서 총 12개국에서 함정 300척, 전투기 700기, 병력 64,000명이 참가하였다. 이 훈련은 상륙훈련, 유럽 북방 측면을 지원하기 위한 연안공군력 투사, 호송임무, 노르웨이해, 북해, 영국해협에서의 대잠전 등의 훈련을 실시했다. 1977년에는 ‘오션

22) Norman Friedman, *The Postwar Naval Revolution* (London: Naval Institute Press, 1986), p.49.

23) Eric Grove and Geoffrey Till, “Anglo-American Maritime Strategy in the Era of Massive Retaliation, 1945-60,” pp.296-297.

사파리 77(Ocean Safari 77)' 훈련을 실시했고, 1978년에는 해상기동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해상수송훈련(Reforger, Wintex, Nifty Nugget) 등을 실시했다.²⁴⁾

1970년대 들어서, 유연반응전략은 무기체계의 발전을 가져왔다. 함대함·함대공 미사일, 미사일 방어 시스템, 함대간 전술 정보 공유가 가능한 데이터 링크(communication data links: Link-11) 시스템, 기뢰전 능력 등의 무기체계를 발전시켰다. 1978년에는 능동소나, 함재 기로부터 발사가 가능한 경어뢰(MK-46 Mod 5 Neartip), 소나부이 등을 개발했다. 그리고 수중익선유도탄정(Patrol Hydrofoil Missile Ship; PHMO)과 수상함의 고속 기동에서도 운용이 가능한 가변심도소나를 개발했다. 또한 미국, 영국, 노르웨이, 덴마크, 서독은 '나토 시그나트 프로젝트(NATO Sea Gnat Project)'를 통해서 미사일 방어 무기체계인 데코이(decoy) 시스템을 개발했다. 한편 소련 잠수함 탐지를 위해 해저 바닥에 송·수신이 가능한 '고정음향탐지체계(the Azores Fixed Acoustic antenna)'를 설치하였다.²⁵⁾

이러한 유연반응 전략은 재래전 능력을 향상시켰다. 그리고 동시에 제한된 핵무기의 사용 또한 계획하였다. 1974년 '슐레징저 독트린(the Schlesinger Doctrin)'은 '제한된 핵무기 옵션(limited nuclear options)'을 강조했다.²⁶⁾ 1970년 말에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포세이돈(Poseidon) 400기가 나토에 배치되었고, 미국의 항모는 핵공격 및 전술핵 사용에 대한 역할을 부여받았다.

전후 소련이 위협으로 등장하면서 모든 전장에서 최대한의 전투력을 발휘할 수 없었던 미국은 대서양으로 힘의 중심을 이동하여 대서양에서는 공격적 해양전략, 태평양에서는 방어적 해양전략을 추구하였다.

24) Eric Grove and Geoffrey Till, *op. cit.*, pp.313-315.

25) *Ibid.*, p.316.

26) Charles A. Sorrels, *U.S. Cruise Missile Program: Defense, Deployment and Implication for Arms Control* (New York, 1983), p.72.

유럽에서 소련의 위협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의 문제는 대서양에 접한 국가들 간의 해양동맹 기구인 나토(NATO)를 창설시켰고 각종 연합 훈련 등을 통해 공격적 해양전략을 체계화 시켰다. 그리고 핵무기에만 의존하는 대량보복전략 하에서 소련의 해군력 강화는 이에 대응하고자 하는 미국의 해양전략의 스펙트럼을 확대시켰고, 재래식 군사력의 향상과 함께 유연반응 전략으로의 전환을 가져왔다.

한편 태평양에서의 위협의 부재는 미국으로 하여금 정치적 방어주의를 통한 방어적 해양전략을 유지하게 하였다. 196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소련의 해군력 증가는 미국의 해군력과 점점 더 균형을 유지하게 되었고 이는 공격과 방어의 균형에 변화를 가져왔다. 소련의 핵심해양공간의 확대는 태평양으로까지 확대되었고, 이것은 곧 미 해군이 성장하려면 태평양에서의 공격적 역할을 추구해야 한다는 논리를 다시금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

4. 소련의 해군력 증강과 미국의 공격적 해양전략

가. 소련의 태평양 진출과 해군력 증강

1) 소련의 태평양 진출과 “핵심해양공간(Blue belt of defense)”

태평양 지역을 바라보는 소련과 미국의 지정학적 관점은 근본적인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미국은 이 지역을 ‘대륙과 대륙 사이, 즉 대륙간(intercontinental)’ 이란 관점으로 ‘저 곳(over there)’으로 바라보고 있고, 소련은 ‘대륙 내(intracontinental)’의 ‘집 앞(doorstep)’이란 관점으로 태평양 지역을 바라보고 있다.²⁷⁾ 두 개의 전선(유럽전선, 태평양전선) 보유, 4,500마일에 이르는 중국과의 국경선 등의 지정학적 취

27) James T. Westwood, “The Soviet Union and the Southern Sea Route,” *Naval War College Review* (Jan-Feb. 1982), p.55.

약점은 소련의 힘의 중심을 우랄산맥 서쪽 유럽으로 집중시켰고, 상대적으로 태평양에서는 방어적인 전략적 목표를 추구하였다. 하지만 태평양전쟁 후 태평양에서의 미국의 정치적 방어주의와 이로 인한 이 지역에서의 힘의 공백에 대한 소련의 인식은 소련의 태평양 진출이라는 새로운 도전적 안보 환경을 가져왔다.

소련의 태평양 지역에 대한 본격적인 진출은 1960년대 이후 브레즈네프기(1964~1982)부터 시작되었다. 1904년 러일전쟁 패배 후, 태평양전쟁 종료 시까지 소련은 극동지역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없었다. 하지만 브레즈네프기인 1960년대 들면서 소련은 정치·경제·군사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현상은 곧 태평양 지역에 대한 소련의 관심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소련군은 1965년 태평양 지역에 20개의 사단에서, 1973년에는 45개의 사단, 1985년에는 미·중 간 데탕트에 대한 대응으로 8개 사단을 추가로 전개시켜 총 53개 사단으로 증가시켰다. 고정익 전투기 또한 1965년에는 300기였던 것이 1985년에는 1,700기로 증강 배치되었다.²⁸⁾ 소련은 전통적으로 태평양 지역에는 탄도미사일 부대를 30%정도만 배치했었는데, 1970년 말부터 증가 배치하기 시작했다. 1983년 6월 태평양에 배치된 델타급(D-class) 전략핵잠수함(SSBN)의 비율은 38.8%였고, 델타급 탑재 미사일 배치 비율은 37.3%였다. 1984년 초에는 델타급 전략핵잠수함(SSBN)의 비율은 41.6%까지 증대되었다. 이같은 태평양 지역의 전력 증강은 198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소련의 네 개의 함대 중 태평양 함대를 제일 큰 함대로 전환시켰다.²⁹⁾

소련의 태평양지역에 대한 전략적 관심의 증대 이유는 다음과 같다.³⁰⁾

28) Michael McCwire, *Military Objectives in Soviet Foreign Policy*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1987), p.164.

29) *Ibid.*, p.175.

30) Abdul Razak Abdullah Baginda, *Soviet Military Power and the Asia-Pacific Region: A Survey* (Malaysia: Regal Publications, 1989), pp. 99-100 and 108-114.

첫째,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과의 군사력 경쟁이다. 냉전기 미국은 태평양 지역을 관할하기 위해 하와이를 본부로 하는 두 개의 함대(서태평양 지역을 관할하는 7함대, 동태평양 지역을 관할하는 3함대)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다. 7함대는 15척의 잠수함(SSN, SS), 2척의 항공모함, 23척의 수상전투함, 9척의 상륙함, 그리고 오키나와에 38,150명의 해병대를 보유하고 있었다. 따라서 소련이 태평양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이러한 해군력에 대항하는 전략이 필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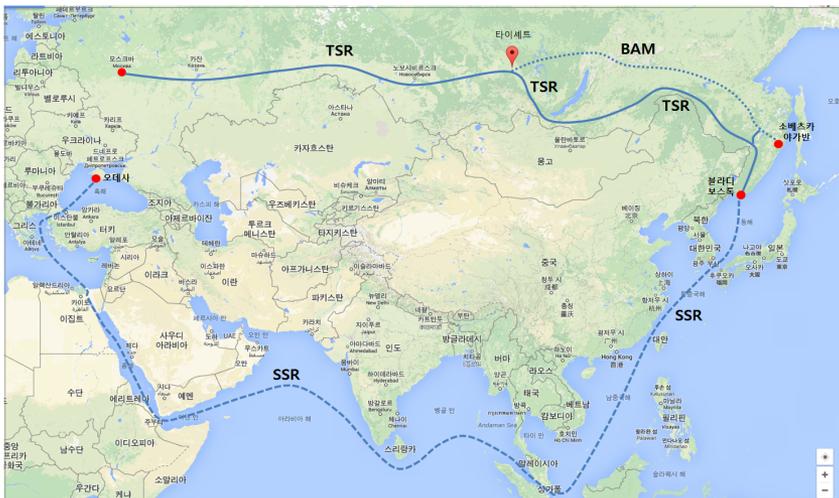
둘째, 1970년대 초 소련은 미국이 동남아시아에서 물러날 것으로 인식하여 태평양 지역에서의 힘의 공백을 채우려고 하였다. 미국의 베트남전 패배, 필리핀과 대만에서 전진기지의 미 보유, 주한 미군의 감축 결정(닉슨독트린), 미소간 전략핵무기감축협정(SALT-I) 등의 미국의 ‘스윙전략(swing strategy)’은 소련으로 하여금 이 지역에서 미국의 후퇴로 인식하게 하였고, 이렇게 해서 발생된 태평양 지역에서의 힘의 공백이 1977년 소련의 태평양 지역의 급격한 해군력 증강으로 이어졌다.

셋째, 중국과의 관계이다. 1950년대 말부터 중소 양국 간의 공산진영 내 주도권 경쟁으로 동맹체제의 이완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중소 양국 간의 심화된 갈등은 1969년 우수리강에서 국경분쟁으로 심화되어 상호 간 돌아올 수 없는 적대관계로 변했다. 1970년대 초부터 소련은 동남아 국가들의 혁명지원과 동시에 중국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대중국 봉쇄전략의 일환으로 베트남의 캄란만에 해군기지를 건설하였다. 중국은 소련의 압박이 지속되자 1979년 1월 1일에 미국과 국교를 수립하였다. 곧 이어 소련은 1979년 4월 3일에 중국으로부터 중·소 동맹조약 폐기를 통보받았다. 따라서 소련은 기존의 동맹관계가 공식적인 적국의 관계가 되어 위협이 가중되었음을 재인식하게 되었다. 소련은 동맹국인 중국의 이탈로 큰 전략적 손실을 감당하여야 하는 위협환경에 직면하게 되었다.

넷째, 일본과의 관계이다. 1978년 중·일 조약이 체결된다. 전통적

적대 관계였던 중국과 일본과의 관계 개선은 두 국가 사이의 분쟁의 종말을 의미했고, 이것은 곧 소련에 대한 태평양 지역에서의 위협으로 작용했다.

다섯째, 지정학적 취약성이다. 앞서 언급했지만 소련의 지정학적 취약성은 네개의 함대가 서로 분리되어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그 당시 소련이 머한주의를 추구했던 점에서, 곧 머한의 집중의 원칙에 어긋나는 전력 배치 개념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지정학적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소련의 태평양 지역에 대한 지리적 접근성을 높이고 해군력 증강을 추구하였다. 아래 <그림 1>에서 보듯이 소련의 태평양 지역 접근 루트는 육상(철도)과 해상이다. 1960년대까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대한 접근은 철도에 의해서만 가능하였다. 하지만 브레즈네프의 ‘남방 해상루트(SSR: Southern Sea Route)’ 정책을 통해서 해상 수송로를 확보하였다.



<그림 1> 소련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략적 접근 루트

※ James T. Westwood, “Soviet Maritime Strategy and Transportation,” *Naval War College Review* (Nov–Dec, 1985), pp.42–58 재구성.

소련은 1984년 9월 20일, ‘바이칼-아무르철도(BAM: Baikal-Amur Mainline)’가 최종 완성되기 전까지는 동과 서를 잇는 유일한 길은 20세기 초에 건설된 ‘시베리아횡단철도(TRS: Trans-Siberian Railroad)’를 이용했다. 하지만 시베리아횡단철도는 5,000마일의 중소국경으로부터 북쪽으로 약 30마일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각종 국경 분쟁 시 전략적으로 취약점을 내포하고 있었다. 따라서 중소국경으로부터 110~310마일 이격된 바이칼-아무르를 잇는 철도를 건설한 것이다.

최초 ‘바이칼-아무르철도(BAM: Baikal-Amur Mainline)’ 건설을 위한 결정은 극동지역의 소련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1936년 스탈린에 의해 결정되어 1939년에 건설이 시작되었다.³¹⁾ ‘BAM’ 건설로 인해 소련의 북해 함대와 태평양 함대를 전략적으로 연결하는 대양해군을 건설할 수 있었다. 그 당시 약 2,000만 명 정도가 극동 지역에 거주하였는데, 1928~60년까지 소련 인구의 20%에서 32%, 산업 생산의 9%에서 27%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극동지역으로의 인구 및 경제력의 집중이 소련의 태평양 지역에 대한 전략적 관심을 증가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³²⁾

‘바이칼-아무르철도(BAM: Baikal-Amur Mainline)’는 소련의 공격잠수함, 수상함, 구축함 등을 보유하고 있는, 소련의 태평양 함대 중세 번째로 큰 해군기지인 ‘소베츠키야 가반(Sovetskaya Gavan)’까지 연결되어 있었다. ‘BAM’의 완성으로 소련은 태평양 지역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전보다 유리해졌고, 취약성 또한 감소하였다.

31) BAM 건설을 결정하기로 한 역사적 배경이 된 최초의 사건은 1904-05년 러일전쟁과 1918-22년 러시아 내전시 열강들의 개입으로 블라디보스톡에 약 70,000명의 일본군이 주둔해 있었던 역사적 사건 등을 통해서 소련은 극동지역으로의 전략적 접근을 강화하고자 생각한 것이다. James T. Westwood, “Soviet Maritime Strategy and Transportation,” *Naval War College Review* (Nov-Dec. 1985), p.42.

32) C. Bohlen, “Soviet’s Lay Last Rail in New Far East Link,” *The Washington Post*, 30 September 1984.

하지만 1961~1981년, 약 20년의 기간 동안 ‘TSR’과 ‘BAM’을 통한 물자 수송이 78%에서 58%로 감소하였다. 이는 브레즈네프의 ‘남방해상루트(SSR: Southern Sea Route)’ 정책을 통해서 해상 교통로를 확보하여 해상을 통해 극동지역으로 물자를 수송했기 때문이었다. 남방해상루트는 1960년대까지 소련의 해상교통로가 아니었다. 하지만 해상수송이 철도를 이용하는 것보다 비용적인 면에서 더 저렴하고 효율적이었고 중국과의 분쟁 시 시베리아횡단철도(TSR)가 중국의 공격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있기 때문에 이같은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해 소련은 ‘남방해상루트(SSR: Southern Sea Route)’를 개척한 것이었다.

해상수송은 크림반도의 오데사(Odessa)에서 지브롤터해협을 통과하여 블라디보스톡으로 가는 루트는 약 17,000마일이고 50일 정도가 소요되었고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게 되면 11,000마일이고 약 32일이 소요되었다.³³⁾ 따라서 소련에게 있어서 남방해상루트(SSR)는 1970년대 이후 사수해야 되는 국가의 핵심 이익으로 등장하게 된 것이었다.

소련 태평양 함대는 1932년 4월 21일 탄생되었다. 태평양 함대는 극동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이고, 사령부가 있는 블라디보스톡(2척의 항모, 해군보병여단), 블라디보스톡의 북쪽에 위치하고 사할린을 감시할 수 있는 두 번째 큰 해군기지인 소베츠키야 가반(Sovetskaya Gavan), 나홉카(Nakhodka), 블라디미르(Vladimir), 올가(Olga), 사할린 남쪽에 위치한 코르스코프(Korskov), 아나디르(Anadyr), 마가단(Magadan), 캄차카반도에 위치해 있고 전략잠수함을 보유한 페트로파블로프스크(Petropavlosk) 기지 등으로 건설되었다.

소련 태평양 함대 기지들의 지정학적 취약점은 페트로파블로프스크 기지를 제외한 대부분의 기지들이 오호츠크해의 소련의 연안을 따라

33) ‘북방해상루트(The Northern Sea Route)’는 일 년 중 해빙기 때인 약 100일 정도만 이용할 수 있었다. 북방해상루트는 소련의 동과 서를 이어주는 역할보다는 시베리아 북부 지역에 대한 개발을 위한 루트로 주로 이용되었다. James T. Westwood, “The Soviet Union and the Southern Sea Route,” p.58.

배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태평양으로 진출하려면 일본과 미국에 의해 통제되고 있는 좁은 수로를 빠져나가야 된다는 것이었다.

‘요새개념(bastion concept)’에 입각한 소련의 해양전략은 전략핵잠수함을 주요 수단으로 핵심 기지에 배치하여 해상으로부터 접근하는 미 해군전력을 거부하는 전략이다. 요새개념을 태평양지역에 적용시키기 위해 소련은 1960년 말부터 핵심해양공간(오호츠크해, 동해, 캄차카반도해역)을 설정하여 해군력을 증강시키기 시작했는데 본격적인 해군력 증강은 1970년대에서 1980년대 기간을 통해서 이루어졌다.³⁴⁾

태평양 지역 핵심해양공간의 역할은 이 공간 내에서 소련 해군의 행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미국의 접근을 거부하려 것이다. 소련은 오호츠크해와 동해를 통제하는 블라디보스톡 해군기지, 쿠릴열도와 캄차카반도, 베링해를 통제하는 페트로파블로스크 해군기지 등 두 개의 핵심 기지를 통해서 핵심해양공간을 통제하였다.

태평양 지역의 핵심해양공간을 통제하기 위한 소련 해군의 주 임무는 ① 전략핵잠수함(SSBN)의 보호였다.³⁵⁾ 특히 델타급 전략핵잠수함이 미국의 주공격 목표물인데, 이 이유는 오호츠크해에서 델타급 전략핵잠수함에서 발사하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사정거리가 미 본토의 2/3를 포함하기 때문이다. ② 해상으로부터 전개되는 미국의 공격을 거부하여 소련 본토를 보호하는 것이다. 미국의 공격에 대한 방어구역은 쿠릴열도를 기준으로 하여 ‘내부방어구역(inner defense zones)’과 ‘외부방어구역(outer defense zones)’으로 구분할 수 있다. 내부방어구역은 오호츠크해, 동해를 포함할 수 있다. 그리고 외부방어

34) Phillip A. Petersen, “The Soviet Conceptual Framework for the Application of Military Power,” *Naval War College Review*, vol. 34(May-june 1981), pp.18-19.

35) James T. Westwood, *Power in the Pacific: An Assessment of Security Issues between the USSR and Japan*, SA-013(Falls Church, Va: E-system, 1983), pp.13-14.

구역은 쿠릴열도로부터 300~400마일 지점에서 미국의 항모를 공격하는 것이다. ③ 베링해를 통한 미국의 공격을 거부하는 것이다.

태평양 지역의 핵심해양공간 중에서 가장 전략적 가치가 높은 곳은 오흐츠크해이다.³⁶⁾ 태평양에서 미국 본토를 공격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요새를 구축해야 되는데 이것은 오흐츠크해의 확실한 방어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략적 공격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오흐츠크해의 확실한 통제, 즉 핵심해양공간인 ‘청색방어지대(blue belt of defense)’의 확보였다.³⁷⁾

오흐츠크해는 쿠릴열도가 천연장벽을 형성하고 있었다. 쿠릴열도를 통과할 수 있는 해협은 평균 수심은 180~900 미터이고, 해협의 폭을 다 합치면 100마일 이상이다. 소련은 이 지역에 고정탐지시스템(fixed detection system), 기뢰, 디젤잠수함 등을 배치하였다. 미국이 오흐츠크해로 군사력을 투사하기 위해서는 항모와 상륙전력을 이용해 쿠릴열도를 통과해야 된다. 따라서 쿠릴열도는 소련에게 있어서 미국의 접근을 거부할 수 있는 최전방 전략적 방어 지점인 것이었다. 소련은 1978년부터 남부 쿠릴열도 네 개 섬에 군사력을 배치하기 시작해서 1983년에는 10,000명의 병력을 배치하였고, 1983년 여름에는 남부의 이투루프(Iturup) 섬에 미그-23(MiG-23) 전대를 배치하였으며, 1984년

36) Michael McCwire, *Military Objectives in Soviet Foreign Policy*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1987), p.170.

37) 청색방어지대는 1966년 4월 1일, 소련 국방부장관인 말리노프스키(Malinovsky)가 제 23차 당 대회에서 “우리의 청색방어지대(blue belt of defense)가 완성되었다”고 언급하였다. 그는 ‘청색방어지대’의 정확한 개념을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미·소 전문가들은 미국의 항공모함 및 전략핵잠수함(SSBN)에 대응하기 위한 ‘청색방어구역(blue defense zone)’ 및 ‘해군 플랫폼과 무기체계를 통한 방어 시스템(blue belt)’으로 판단하고 있다. ‘청색방어지대’는 소련을 봉쇄할 수 있는 핵심해역인 인도양(Indian ocean), 바렌츠해(the Barents sea) 그리고 태평양의 오흐츠크해(the sea of Okhotsk)를 소련의 핵심방어구역으로 설정하였다. Robert Waring Herrick, *The USSR's "Blue Belt of Defense" Concept: A Unified Military Plan for Defense against Seaborne Nuclear Attack by Strike Carrier and Polaris/Poseidon SSBNs* (Virginia: Center for Naval Analyses, 1973), pp.1-3.

봄에는 40기를 증강 배치하였다.³⁸⁾ 이 같은 핵심해양공간을 방어할 수 있는 ‘방어 시스템’은 전략적 및 전술적 억제가 가능하고 잠수함발사탄 도미사일(SLBM)을 탑재할 수 있는 전략핵잠수함(SSBN), 미국의 전략 핵잠수함을 추적 및 격침시킬 수 있는 대잠능력을 갖춘 전투함, 공격용 잠수함, 연안대잠항공기, 헬기탑재 항모(모스크바, 레닌그라드 함) 등으로 구성되었다. 실제로 1965~66년 당시 소련의 핵잠수함 35척 중 23척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다.³⁹⁾

소련은 태평양의 청색방어지대인 오호츠크해를 방어하는 훈련을 1970년대 들어서 여러 차례 실시했다. 서방세계에 ‘오킨 70(Okean 70)’으로 알려진 1970년도 소련 해군의 훈련은 태평양 방면에서 대양 해군의 능력을 과시했다. 모스크바의 중앙 지휘부는 4개의 소련함대, 1개의 인도양 전대 그리고 1개의 실질적인 지중해 함대를 지휘했고, 200척 이상의 수상함과 잠수함이 그 훈련에 참가했는데, 유도미사일 함정과 헬기 항공모함도 포함되었다.

1975년에는 ‘오킨 75(Okean 75)’로 알려진 소련의 두 번째 훈련을 실시하였다. 이 훈련에서는 소련은 ‘오킨 70’ 이래로 5년 만에 소련 해군이 괄목할 정도로 성장했음을 보여 주었다. 이 훈련기간 동안 총 220척의 함정과 잠수함이 공격적인 전략을 전개했다. 이 함정들은 자국 해군의 항공대로부터 지원을 받았는데, 그 항공대에는 백파이어(Backfire)로 불리는 장거리 폭격기도 포함되었다. 백파이어는 2발의 대함미사일을 장착했으며, 연료를 보급 받지 않은 채 3,000마일을 비행할 수 있는 항속거리를 갖고 있었다. 이 훈련에서 소련 함대는 일본, 필리핀 해, 동지나해, 캄차카반도 등 1,500마일의 방어지역을 넘어선 곳에서까지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38) Drew Middleton, “Soviet Strategic Region,” *New York Times*, 2 September 1983.

39) “Stuart Loory from Moscow,” *New York Herald Tribune*, 2 April 1966.

2) 1,000해리 방어 개념과 해군력 발전

브레즈네프기(1964~1982) 소련 해군은 대양해군을 지향하는 머헨주 의적 해양전략을 적극적으로 채택하여 대대적인 해군력 증강을 추진하였다. 이는 1956년부터 1985년간 소련 해군총사령관을 지낸 고르시코프 제독에 의해 수립된 소련의 국가 해양력 증진을 목표로 둔 해양전략 추진에 따른 결과였다. 고르시코프는 영국 오브제독의 해양 거부론에 기초한 대륙적 해양전략사고에 머헨 제독의 해양통제사상을 발전시켜 소련이 대륙에 둘러싸인 지정학적 제한점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즉 대서양과 태평양 등 인접 해양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해양지향적 국가전략을 추진했으며 이를 구현하기 위해 대대적인 공세적 해군력 건설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고르시코프의 해양전략 사상을 기반으로 한 브레즈네프기 소련은 미국을 포함한 서방세계와 불가피하게 핵전쟁을 하게 될 경우를 상정하고 해군력을 성장시켰다. 이에 따라 소련의 해군전략은 미국의 전략핵잠수함과 항공모함 기동전단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그 초점이 맞추어졌다. 소련 해군은 평시에 적의 전략핵잠수함과 항공모함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또 유사시 적의 해군력이 본토를 공격하고자 하는 의도를 보일 때, 이를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즉응전력을 갖추는데 집중하였다.⁴⁰⁾

1960년 이후부터 소련 해군은 공격(해양통제)과 방어(해양거부)의 임무를 강조하였다. ① 전략 핵공격을 준비하고 실행하기 위한 전략핵잠수함(SSBN) 보호, ② 미국의 공격에 대한 소련 본토 및 동맹국 방어, ③ 육상작전 지원, ④ 적의 해상교통로(SLOC) 차단 등의 임무를 강조하였다. 태평양 지역에서 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소련은 핵심해양공간(오호츠크해+동해)에서는 해양통제를 실시하고 이후 1,000마일 지역까지는 해양거부 전략을 실시하는 1,000해리 방어 개념을 도입하였

40) Bryan Ranft and Geoffrey Till, *The Sea in Soviet Strategy*, p.95.

다.⁴¹⁾

소련 태평양 함대의 주 임무는 바다로부터 접근하는 미 항모의 공격을 거부하고 소련의 전략핵잠수함(SSBN)을 보호하는 것이다. 미 항모의 접근을 거부하기 위해 소련은 미사일을 개발하기 시작했다.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순항미사일과 전투기에서 발사되는 공대함미사일(ASM: Air-to-Surface Missile)을 개발했다. 특히, 공대함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배저(TU-16 Badger), 백파이어(TU-22M Backfire), 비어(TU-95 Bear), 블라인더(TU-22 Blinder) 등의 폭격기를 개발하였다. 그리고 소련은 전략핵잠수함(SSBN)의 75%를 작전, 25%를 수리 개념으로 운용하였다. 작전 중에 있는 전략핵잠수함은 3주 이내에 어디든지 배치할 수 있었다. 따라서 1,000해리 해상방어구역은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접근을 거부하고 전략핵잠수함의 생존성을 향상시켜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잠수함, 수상함, 전투기, 미사일 등의 무기체계의 발전은 이후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1,500해리 방어 개념으로 발전하였다.⁴²⁾

1970년대에 소련은 태평양 함대와 그 지원기지들을 신속하게 그리고 끊임없이 증강했다. 1974년, 소련 해군력 중 잠수함 24%, 수상함 26%, 해군 항공기 10%의 해군력이 태평양 함대에 배치되었고 소련 전체 해군력의 20%가 태평양 함대에 배치되었다. 소련은 1980 중반부터 잠수함 및 항모 전력을 증강시켰다. 그리고 <표 3>에서 보면 1987년대에는 소련 전체 해군력의 약 32%가 태평양 함대에 배치되었고 이 증강된 전력 중 대잠전 능력과 전략핵잠수함(SSBN: Nuclear Power Ballistic Missile Submarine) 전력을 강화했다. 특히 소련은 약 3,000마일의 작전거리를 갖춘 약 400대의 지상발진 백파이어(backfire) 전략폭격기를 주요 연안지역에 배치하여 미국 해군을 위협

41) CIA National Intelligence Estimate 11-15-82/D, *Soviet Naval Strategy and Programs through the 1990s*(1983.3), p.121.

42) *Ibid.*, p.168.

하였다.

1980년대 들어서도 오호츠크해 방어를 위한 훈련을 실시했는데, 1985년 9월, 소련은 대규모의 상륙군을 일본 홋카이도에 상륙시키는 연습을 하였다. 이 훈련에는 백파이어 폭격기, 노보로시스크 항모를 포함한 20척의 잠수함 및 수상함이 참가하였다. 그리고 1980년대 들어서 태평양 함대에 최초로 소련 ‘항모전투그룹(CBG: Carrier Battle Group)’이 배치되었다. 이 전투그룹의 구성은 항모(노보로시스크) 1척, 카라(Kara)급 순양함 3척, 크레스타(Kresta)급 순양함 1척, 크리바크(Krivak)급 호위함 1척, 크리바크(Krivak)-Ⅱ급 호위함 1척, 보리스 치리킨(Boris Chilikin)급 군수지원함 1척 등으로 구성되었다. 1985년 이 항모전투그룹은 일본을 돌아서 블라디보스톡까지 평균속력 18노트 로 기동하였다.

〈표 3〉 소련 함대 해군력 비교, 1987

구분	북해	발틱	흑해	태평양
SSBN	37	-	-	25
SSB	2	6	-	7
SSGN	30	-	-	20
SSG	8	3	1	4
SSN	50	-	-	25
SS	45	30	30	30
항모	1	-	1	2
순양함	9	1	7	11
구축함	18	9	14	12
호위함	8	6	7	11
경순양함	2	2	3	4
구축함	2	2	7	9
총계	212	59	70	160

출처: Jane's Fighting Ships, 1987-88.

나. 미국의 태평양 지역 공격적 해양전략

1) 태평양에서의 공격적 전략 개념 발전

과거 20년 동안 소련 해군력은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었고, 이에 반해 미 해군의 군사력 수준은 감소하고 있었다. 1970~1980년 동안에 미 해군 함정 척수는 총 847척에서 538척으로 감소하였고, 병력은 675,000명에서 535,000명으로 감소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표면적인 미 해군력의 감축과는 달리 미 해군의 전략적 사고는 소련에 대응하기 위해 공격적으로 변하고 있었고, 공식적인 해양전략의 탄생이 이 시기에 이루어졌다.

1946~1975년 기간 동안 미국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군사력의 사용에 있어서 총 215건의 군사력 사용 중 81%인 177건이 해군력의 사용과 관련이 있었고, 177건 중 절반 이상이 항모의 투입과 관련된 사건이었다.⁴³⁾

그리고 1975~1984년 기간 동안 71건의 군사력 사용 중 81%인 58건이 해군력의 사용과 관련이 있었고, 58건 중 35건이 항모의 투입을 통한 작전이 이루어졌다. 같은 기간 동안 미국의 전략해군은 큰 역할을 하지 못했고 재래식 군사력이 정치적 목적 해결에 더 큰 역할을 하였다. 1946~1975년 30년 기간 동안 미국은 대외 관계에서 19차례의 사건에서 핵군사력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고, 1975~1984년 기간 동안에는 정치적 목적을 위한 핵무기의 실질적인 사용은 없었다.⁴⁴⁾ 이처럼 냉전은 머한이 전혀 발전시키지 못했던 평시 해양력의 정치적 사용에 관한 영역의 중요성을 나타내고 있었다.⁴⁵⁾

43) Barry M. Blechman and Stephen S. Kaplan, *Force Without War* (Washington, D.C.: The Brookings Institute, 1978), pp.38-41.

44) John B. Hattendorf, *The Evolution of the Maritime Strategy, 1977-1986* (Newport, Rhode Island: Naval War College Press, 2004), pp.3-4.

45) Geoffrey Till, *Maritime Strategy and The Nuclear Age* (London: The Macmillan Press, 1984), pp.58-68.

1960년 초부터 구체화되고 있었던 소련 해군력의 증가는 197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미국 해군과 능력 면에서 거의 동등한 수준으로까지 발전되고 있었다. 소련의 해군력 발전을 직시하고 있었던 미 해군은 만약 소련과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 전장은 북서태평양과 북대서양에서 일어날 것이고 소련의 전략핵잠수함(SSBN)은 바렌츠해와 오희츠크해 등 핵심해양공간을 방어하는 목적으로 운용될 것으로 판단했다.⁴⁶⁾ 소련 해군력의 지속적인 성장은 그동안 미국의 힘의 중심이 대서양에 집중되어 있었던 것을 태평양으로까지 확장시키고 있었다.

미 해군은 소련이 해상에서 항공작전 능력 향상과 전략핵잠수함(SSBN) 보호를 위해서 ‘키예프급(Kiev-class)’ 항모를 핵심으로 사용할 것으로 판단했다. 왜냐하면 소련은 제 2타격 능력 유지 그리고 협상국면에서 소련에 유리한 협상카드로 사용하기 위해, 재래전 단계 또는 초기 핵타격 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보유하고자 하는 ‘유보전략(withhold strategy)’을 수행할 것으로 미국은 판단하고 있었다.

미 해군은 이같은 소련의 전략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세 가지 영역에서의 변화를 주장했다. ① 소련의 전략핵잠수함(SSBN)에 대응하기 위하여 재래식 무기로써 해양통제를 할 수 있는 능력 보유, ② 소련의 핵심해양공간 내에서 미 해군의 효과적인 억제 능력 향상을 위해서 장거리, 원격 대잠전 무기체계 보유, ③ 소련의 핵능력을 고려한 미 해군 독트린의 재평가 필요성이었다. 197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이같은 안보환경과 인식의 변화는 미 해군으로 하여금 공격적 독트린으로의 전환을 가져왔다.

베트남 전쟁 이후 미 해군 예산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었다.

46) James M. McConnell, "Strategy and Missions of the Soviet Navy in the Year 2000," in James L. George, ed., *Problems of Sea Power as We Approach the Twenty-First Century* (Washington, D.C.: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for Public Policy Research, 1978), pp.61-62.

1962~1972년까지 미 해군은 매년 42척의 함정 건조를 계획했으나, 실질적으로 1968~1975년까지 매년 12척만이 건조되었다. 이전 10년 동안 미 군함은 947척에서 478척으로 감소되었고 1976년 국방예산은 1940년 이후 가장 낮은 24.8%를 기록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포드(Gerald R. Ford, 재임기간 1974~1977) 대통령은 미 해군력 우위를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으나, 미 의회는 포드 행정부의 해군력 증강에 대한 계획을 승인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미 해군은 공격적 독트린의 전략적 사고를 계속 발전시켰다.

해군참모총장 줘왈트(Elmo Zumwalt, 재임기간 1970~1974) 제독은 미 해군이 소련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해군평가단(the Navy Net Assessment Group)’을 설치하고, 5개년 장기 정책에 대한 분석을 제공하기 위해 ‘프로젝트 2000(Project 2000)’을 지원했으며 미 해군대학의 교과과정을 개정하여 전략적 사고의 확대를 위해 노력했다. 그리고 코켈(William Cockell) 대령에 의해 작성된 ‘1970년대 미국의 태평양-인도양 전략(U.S. Strategy for the Pacific-Indian Ocean Area in the 1970s)’ 보고서는 태평양 지역을 전략적 독립 전장으로 간주하였다.⁴⁷⁾ 이 보고서는 디에고 가르시아 섬을 인도양에서 미국의 주요 해군기지로써 판단했고, 페르시아만에서 극동지역에 이르는 해상교통로를 전체적인 하나의 핵심 관리 지역으로 구분했다.

한편 미 해군력이 어느 정도로 유지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전략적 사고 또한 발전했다. 1975년 국방장관 슐레진저(James Schlesinger, 1973~1975)는 미 해군력의 최종 목표를 575척, 1976년 국방장관 럼스펠드(Donald Rumsfeld, 1975~1977)는 600척, 1977~1978년 국방장관 브라운(Harold Brown, 1977~1981)은 425~500척의 해군력 건설의 목표로 설정했다. 600척 건설에 대한 기준은 미래 소련과의 전쟁을

47) John B. Hattendorf, *The Evolution of the Maritime Strategy, 1977-1986* (Newport, Rhode Island: Naval War College Press, 2004), pp.8-9.

고려한 판단이었고, 가장 낮은 400척의 군사력 건설 기준은 미 해군이 단지 평화유지 작전 및 소련 해군이 개입하지 않은 분쟁을 위한 목적으로 한 건설이었다. 참모총장 할로웨이(James L. Holloway III, 재임기간 1974~1978)는 미 해군이 소련 해군과의 균형을 유지하고 평시 전방전개를 통해서 해양통제 및 군사력 투사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600척 해군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고, 1982년 해군성 장관 레먼(John F. Lehman, jr)은 600척 해군을 승인하였다.

미 해군은 소련 해군의 작전 능력에 대응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항모전투전단이라고 판단했다. 전시 해양통제를 획득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도전하는 적 세력(소련 해군력 및 지원기지)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었고, 이러한 공격적 행동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 항모전투전단이라고 판단했다. 소련의 지정학적인 취약점을 이용하고 항모를 활용한 해군력의 공격적 운영은 소련을 방어적이고 수동적으로 대응하게 한다는 것이 미 해군의 공격적 전략이었다. 이것을 위해 필요한 전력이 600척 해군 개념이었다.

600척 개념의 공격적 전략 운용을 위하여 미 해군은 현재 총 12척의 항모로 태평양(2), 지중해(2), 인도양(1)에서 작전 중인 항모 전력을 태평양(3), 지중해(3), 인도양(2) 등 3척의 항모를 증강시켜 총 15척으로 운용해야 된다고 주장했다.⁴⁸⁾ 3척의 항모 증강은 이를 구성하는 수상함 26척, 군수지원함 8척 등 추가적인 증강을 필요로 한다.

한편 항모를 포함하지 않고 독자적인 임무 수행이 가능하며 군사력의 운용에 있어서 유연성이 가능한 4개의 수상전투단(SAG: Surface Action Groups) 창설을 제안했다. 또한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기뢰전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소련에 대항하기 위해 현재 25척 보유하고 있는 기뢰전함(1960년 중반에는 100척 보유)을 적어도 31척까지 증강시키는

48) The Congress of the United States Congressional Budget Office, *Building a 600-Ship Navy: Costs, Timing, and Alternative Approaches* (Mar. 1982), pp.9-15.

계획을 제안했다. 1970년대 동안 미 해군에서 공격적 전략 개념의 확대는 항모전투단과 수상전투단의 발전으로 이어졌고, 이 개념은 ‘해상 타격전략(Sea Strike Strategy)’과 ‘시플랜 2000(Sea Plan 2000)’ 개념으로 나타났다.

2) 해상타격전략(Sea Strike Strategy)

‘해상타격전략’과 ‘시플랜 2000’은 나토와 바르샤바조약기구 간 전쟁에서 유럽의 중부 전선(대서양)에 대한 집중과 해군의 제한된 역할을 강조하는 카터 행정부의 국방 정책에 대한 미 해군의 반대 입장이 내포된 계획이다.

해상타격전략의 기본 개념은 헤이워드(Hayward) 제독이 1976~1977까지 미 7함대 사령관으로 재임 시 구상되었다. 헤이워드 제독이 미 7함대 부임 시, 7함대는 단일통합작전계획(SIOP: Single Integrated Operation Plan)에 의해 유지되고 있었다. 하지만 이 계획에서는 소련 해군 및 태평양의 지정학적인 요소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있었다. 이 계획은 유연반응전략을 기본 전략으로 하여 분쟁 발생 시 대서양에 집중하기 위하여 태평양의 군사력을 대서양으로 전환시키는 ‘스윙전략(swing strategy)’을 추구하고 있었다. 따라서 헤이워드는 태평양 해양전략의 재검토를 지시했다.⁴⁹⁾

헤이워드의 목적은 소련과의 전쟁 시 전쟁계획 발전의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써 태평양 함대를 미 해군전략 내에 위치시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는 전쟁 준비와 태평양 함대의 전비태세 상태에 관심이 있었다. 이 당시 태평양 함대는 공격적인 전쟁 계획이 없었고 단지 방어적인 계획만 존재했다. 헤이워드는 태평양 함대의 유연성을 위해서는 신뢰성 있는 공격 계획이 필요함을 인식하였다.

49) John B. Hattendorf, *The Evolution of the Maritime Strategy, 1977-1986* (Newport, Rhode Island: Naval War College Press, 2004), pp. 17-20.

헤이워드(Heiward)는 캄차카반도와 동시베리아에 구축되어 있는 소련 해군기지에 대한 공세적 타격을 위한 계획을 검토했다. 해상타격전략은 최초 소련과 재래전 발발 시 미 태평양 함대의 작전계획으로 시작되었다. 이 전략은 태평양 함대가 현재 운용이 가능한 전력으로 소련의 페트로파블로스크, 블라디보스톡, 쿠릴열도에 대한 분쟁 초기 공격을 위한 계획이었다. 태평양 함대는 페트로파블로스크 기지로부터 동·남쪽 각각 500마일 떨어진 지점에서 4개의 공격용 항모로 구성된 전투그룹을 형성하고, 소련 목표물의 50% 파괴를 목적으로 두 방향에서 약 100기의 함재기로 공중 공격을 실시하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그리고 해상타격 전략은 전면전 계획에 의해 필요에 따라 태평양 전력을 대서양으로 이동(swing)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포함하였다. 즉, 태평양 지역에서 공격적 해양전략을 추구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은 소련이 약 101,000명의 병력을 극동지역에서 유럽으로 신속히 수송할 수 있는 공중수송능력을 갖춘 것으로 분석하였다. 따라서 미 해군의 해상타격전략은 극동지역의 소련 병력을 유럽으로 전개되는 것을 억제할 수 있는 전략이었고, 태평양 국가들로 하여금 소련의 태평양 진출에 대응하여 미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전략이었다. 또한 해상타격전략은 미 태평양 함대 전력의 즉각적인 사용을 전제로 하였고, 동시에 유럽으로 전개되기 위해 요구되는 30일 간의 비효율적인 대기기간 대신에 알래스카와 미 서부해안을 방어하는 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 이같은 전략의 변화는 미국의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작성되는 국가전략의 변화를 초래했고, 결과적으로 대통령에 의해 승인되었다.

3) 시플랜 2000(Sea Plan 2000)

1977년 1월, 지미 카터 대통령 취임과 함께 해군성 장관에는 클레이터(W. Graham Claytor Jr.), 해군성 부장관에는 울시(R. James

Woolsey)가 임명되었다. 이들은 카터 대통령의 방위정책 보고서인 ‘PRM-10(Presidential Review Memorandum-10)’이 전략을 수행하기 위한 해군의 임무와 역할, 해군력 건설 등의 수준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1977년 8월 1일, 미 국방부 차관은 해군에게 전투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해군의 임무와 군사력 구조 등에 대한 검토를 지시했다. 미 해군대학 소속의 고등연구센터(the Center for Advanced Research) 연구원인 웨스트(Francis J. West, Jr.)를 책임자로 하고 10명의 해군장교와 2명의 해병대장교로 구성된 ‘시플랜 2000 연구 그룹(the Sea Plan 2000 Study Group)’이 조직되었다.

클레이터는 이 연구를 위한 인식으로써 미 해군은 태평양전쟁 이후 지금까지 수행해왔던 역할보다 미래에는 더 많은 역할을 수행할 것이고, 수상함은 이지스(Aegis) 전투체계에 의해 생존성이 향상될 것이며 소련과의 대결에서는 유연성과 균형을 갖추어서 공격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 해군의 공격적인 임무는 평시 해군력의 전진배치를 통해 해상교통로를 보호하고 소련과의 경쟁에서 해상우세를 달성하여 소련의 위협을 억제하는 역할이었다.

나아가서 시플랜 2000은 미 해군은 소련과의 전쟁에서 소련 함대를 격파하고 어떠한 장소라도 소련의 접근을 거부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라고 제시하면서,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수상, 수중, 공중에서 공격적인 작전을 계획해야 되고 해상교통로(SLOC) 보호나 동맹국 지원 등의 임무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⁵⁰⁾ 책임자인 웨스트 또한 태평양에서 미 해군은 공격적인 작전 능력을 강화해야 된다고 주장하였다. 시플랜 2000은 1978년 3월 해군성 장관 클레이터에 의해 승인되었다.

50) Office of the Secretary of the Navy, *Sea Plan 2000: Naval Force Planning Study* (Mar. 1978), p.45.

4) 해양전략 형성 : '전방전개 해양전략(Forward Maritime Strategy)'

1978년 6월 헤이워드(Thomas B. Hayward, 1978~1986) 제독의 해군참모총장 취임은 그동안 태평양 지역에서 공격적 해양전략을 추구하고자 했던 미 해군의 전략적 사고를 더욱더 확대시키고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한 지역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전략이 아닌 전 세계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한 헤이워드는 1979년 1월 '참모총장 전략 개념(CNO Strategic Concepts)'을 제시하였다. 이 개념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미 해군은 공격적인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소련 해군의 능력은 미국과 동등할 정도로 향상되고 있고, 작전범위 또한 태평양까지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이 핵심해양지역을 통제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미국의 지위에 도전하는 소련 해군력을 파괴시키는 것이다.

② 지금의 미 해군력은 소련 해군력보다 수적으로 우세하고 앞으로 도 그럴 것이다. 이같은 해상에서 우세를 유지하는 동력은 항공모함과 해상에서의 생존성에 놓여있다. 따라서 미 해군은 소련 해군과의 '미러 이미지(mirror-image)'를 지향해서는 안되고 언제나 우세를 유지하기 위한 능력을 추구해야 된다.

③ 미 해군은 기술적 우세와 동맹국과의 협조를 유지해야 한다.

④ 미국은 소련의 지리적 취약점과 방어적 정체성을 이용해야 된다.

⑤ 미 해군은 현재 있는 자산으로 전투수행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시간·장소·위협에 대한 통제를 위해 방어적 전략이 아닌 공격적이 전략을 수립해야 된다.

⑥ 태평양의 군사력을 유럽으로 전환시키는 스윙전략은 시대착오적이다.

⑦ 현재 미 군사력은 서태평양, 지중해, 북대서양, 노르웨이해, 인도양 등을 동시에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따라서 미국은 핵심 지역

에 대한 우선순위를 뒤야하고 이러한 지역에 대해 축차적인 통제 필요하다.

정리해보면, 미 해군이 5개 전구(서태평양, 대서양, 지중해, 노르웨이해, 인도양)에서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2개의 전투 함대가 필요하고, 한 지역에서 소련을 격퇴시키고, 이후 다른 지역에서도 소련을 격퇴시키기 위해서는 강력한 공격 능력을 가진 해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⁵¹⁾

헤이워드스는 해군성 부장관을 지낸 머레이(Robert J. Murray)를 책임자로 한, ‘전략연구그룹(Strategic Studies Group; SSG)을 창설했다. 1981년 8월 31일 전략연구그룹(SSG)의 첫 모임에서 머레이는 향후 미 해군이 추구해야 될 ① 단기 공격적 전략과 ② 장기 공격적 전략이란 두 가지의 핵심 키워드를 제시하면서 어떻게 소련과의 전쟁에서 우세를 유지할 수 있는가를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이러한 개념을 구체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전략연구그룹(SSG)은 여러 기관 및 장교들과 인터뷰 및 공청회를 실시했다.

미 해군성 장관 레먼(John Lehman)은 전략연구그룹(SSG)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국익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미 해군만이 소련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미국의 지정학적 요소들을 고려한다면 15척의 항모를 운용할 수 있는 600척 해군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500척 이내로는 미국은 세계 전쟁에서 전투를 수행할 수 없고, 한 개 또는 그 이상의 핵심 지역을 포기해야 된다고 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소련은 미국의 힘의 공백 지역으로 전력을 투사할 것으로 판단했다.

전략연구그룹(SSG)은 ‘전방전개 해양전략(a Forward Maritime Strategy)’ 개념을 발전시켰다.⁵²⁾ 이 개념에서, 해군력은 전쟁 발생을 억제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하지만 억제가 실패한다면 전방지역에 신

51) Thomas B. Hayward, “The Future of U.S. Sea Power,” *Proceedings*, vol. 105, no. 5(May 1979), p.66.

52) John B. Hattendorf, *op. cit.*, pp. 54-55.

속히 군사력을 투사하는 해양전략을 수행함으로써 소련과의 전쟁을 미국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종결지을 수 있게 기여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해군력이 태평양과 유럽에서 해상교통로(SLOC)를 보호하기 위하여 해양통제를 달성한다면 다양한 전선에 신속히 군사력을 투사하는 해양전략은 통상로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소련의 전투수행 의지, 소련군의 중부전선 집중, 신속한 승리에 대한 야망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소련이 적대행위를 시작하기 전 소련의 핵심해양공간 내에서 소련 해군력의 팽창을 억제하는 것이다.

1982년 6월, 왓킨스(James Watkins, 1982~1986) 제독이 헤이워드 후임으로 참모총장에 보직되었다. 왓킨스는 해군 단독만이 아닌 미국 전체를 고려한 해양전략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그는 1982년 10월 14쪽의 “해양전략에 대한 보고서(Memorandum on Maritime Strategy)”를 발간하였다.⁵³⁾ 그는 해군의 임무를 ① 해상교통로를 보호하여 전장지역으로의 접근을 확보하는 것, ② 미국의 측면을 보고하고 소련의 측면을 노출시키기 위해 해상에서 공세적인 작전 필요(소련 함대 격침, 핵심 거점 지역 보호), ③ 해군은 직·간접적으로 지상 전투를 지원하여 전선 안정화 필요(전술항공, 상륙작전, 동맹국과의 협동작전), ④ 소련의 전략적 자산에 대한 공격(소련으로 하여금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궁극적인 전략적 수준 감소 인식) 등으로 정리하면서 전략의 개념을 확대시켰다.

한편 태평양 전구에서의 미 해군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명시했다. ① 미 본토 방어, ② 태평양 해상교통로(SLOC) 방어, ③ 소련 해군 격파, ④ 소련에 대한 직접적인 압박 등이다. 그리고 태평양 전구에서 소련과의 대결 시, 미국은 알류산 열도와 필리핀 북부로 동시에 진격하여 소련 군사력을 중국 국경지역으로부터 분산시키는 계획을 수립하였다.

53) “Memorandum on Maritime Strategy,”(Center for Naval Warfare Studies: the Newport Paper, 1982).

그리고 최종적으로 소련의 태평양 핵심해양공간 최종 방어선인 쿠릴열도를 일본과 연합을 통해 봉쇄하여 소련을 억제시킨다는 전략을 계획하였다. ‘최상의 방어는 최고의 공격(the best defense remains a good offense)’ 개념이 전방전개 해양전략의 핵심이었다.

소련의 태평양 진출과 미국의 전략개념의 확대는 공격적 해양전략 개념인 전방전개 해양전략을 탄생시켰고, 3단계의 국면 전개로 개념화할 수 있다.⁵⁴⁾

첫째, 전쟁의 억제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잠수함과 같은 대잠전 전력의 전진 배치, 소련 해군 기지 봉쇄를 통한 소련 잠수함의 기동 억제, 항모의 전진 배치, 상륙전력의 전진 배치 등을 통하여 소련과의 전쟁을 억제하는 것이다.

둘째, 주도권 유지 단계이다. 만약 억제가 실패한다면 주도권 유지를 위해서는 가능한 신속히 해군력을 전개시켜 핵심 해역에서의 해양통제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전쟁 수행 단계이다. 해양통제의 확보, 적 연안 목표물에 대한 직접적인 항모공격과 상륙전력 사용과 함께 공격을 전개한다. 소련 본토에 대한 직접적인 재래식 공격을 실시하여 승리를 달성한다.

왓킨슨은 이같은 3단계를 통해 이루어지는 미 해군의 공격적 해양전략의 목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했다.⁵⁵⁾ ① 소련으로 하여금 미국과의 전쟁은 국지전이 아닌 세계 대전으로 발전할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어 소련의 공격적인 행위를 거부하는 것이다. ② 소련 해군을 파괴하여 적의 의지를 무력화 시킨다. ③ 항모와 상륙전력을 이용하여 소련 군사력의 재배치를 제한하여 지상전에 영향을 주어 소련의 지정학적 취약점을 증대시킨다. ④ 핵무기의 상호 교환, 직접적인 소련 본토에 대한 공격 위협 등과 같은 전략을 통해 전쟁을 미국에 유리하도록 종결

54) Linton F. Brooks, “Naval Power and National Security: The Case for the Maritime Strategy,” *International Security*, vol.11, no. 2(Fall 1986), pp.65-66.

55) James D. Watkins, “The Maritime Strategy,” *Proceedings*(Jan. 1986), p.14.

짓는다는 것이다.

1970년대 이후부터 시작된 미국의 해양전략의 변화는 머헨 이래로 해군이 평시에 것처럼 종합적인 교리를 제시한 적은 없었다. 미국의 해양전략은 왓킨스(James D. Watkins: 1982.6~1986.6) 해군참모총장의 꾸준하고 혁신적인 지휘하에서 발전되었으며, 레먼(John F. Lehman Jr: 1981. 2~1987.5) 해군장관에 의해 효과적으로 채택되었다. 그러는 동안 레이건 대통령과 와인버거(Caspar Weinberger: 1981.1~1987.11) 국방장관은 해군이 그 해양전략을 실행하도록 허용했으며, 따라서 마지막으로 고조된 냉전기 동안 해양력의 적절성을 부활하도록 허용하였던 것이다.

5. 결론

앞의 논의를 통해 이 글에서 말하고자하는 바는, 태평양 지역에서의 국가 간 힘의 메커니즘은 철저하게 해양공간을 통한 해양지정학적 원리로서 작용한다는 것이다. 즉, 작용과 반작용, 공격과 방어의 균형이 작동하고 있는 태평양 지역은 ‘기존 힘(현상유지국가)’의 공백은 곧 ‘다른 힘(도전국가)’의 유입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1970년 중반 이후 미국과 중국의 화해에 따른 데탕트 도래, 베트남 전쟁 패배에 따른 반전 분위기 고조 그리고 소련의 대양해군 건설 추진 등으로 양국간 해군력 우위가 반전되었다. 1969년 7월 25일, 소위 ‘베트남 신드롬’ 극복을 위한 ‘닉슨 독트린’에 의해 미국은 중국과의 관계 개선, 동맹국과의 안보 분담을 제시하였으며 미국의 군사력 부담을 완화시키는 고립주의 대외정책을 채택하였다. 이는 미국의 카터 대통령 행정부에 이르러 절정에 이르렀다. 1977년 카터 행정부는 전임자 포드 행정부가 제시한 1978년부터 1982년 간 해군력 건설 계획 전력을 1/2로 대폭적으로 삭감하였고, 계획되었던 니미츠급 항공모함 4번함 건조

계획도 취소시켰다. 반면 소련 해군력은 약 1,700척으로 증강되었다.

태평양에서 이와 같은 미국의 수세적인 전략은 소련에게 태평양 지역의 힘의 공백상태라는 인식을 심어주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1970년대 들어 소련은 대양해군을 지향하는 머헨주의적 해양전략을 적극적으로 채택하여 대대적인 해군력 증강을 추진하였다. 이는 1956년부터 1985년 까지 29년간 소련 해군참모총장을 지낸 고르시코프 제독에 의해 수립된 소련의 국가 해양력 증진을 목표로 둔 해양전략 추진에 따른 결과였다. 철저한 머헨주의자인 고르시코프 제독은 소련이 대륙에 둘러싸인 지정학적 제한점을 극복하기 위해 대서양과 태평양 등 인접 해양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해양지향적 국가전략 추진을 주장하였으며, 이를 구현하기 위해 대대적인 공세적 해군력 건설을 추진하였다.

태평양 지역에서 소련의 도전에 대한 미 해군은 태평양 해양전략을 방어적에서 공격적으로 전환시켰다. 미 해군은 소련 해군과의 균형을 유지하고 평시 전방전개를 통해서 해양통제 및 군사력 투사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600척 해군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전후 방어적인 계획만 존재했었던 태평양 전략을 재검토하여 공격적인 계획인 ‘해상타격전략’을 계획하였고, 미국의 이익과 관련된 어떠한 장소라도 미 해군의 전방 전개를 통해서 소련 해군의 접근을 거부하는 ‘시플렌 2000’ 등의 공격적인 해양전략을 수립했다.

한편, 참모총장 헤이워드 제독은 ‘참모총장 전략 개념(CNO Strategic Concept)’을 제시하여 미 해군이 공격적인 작전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판단하였고, ‘전략연구그룹(SSG)’를 통해서 해군의 역할을 억제할 수 있도록 유지하고, 역제가 실패한다면 주도권을 유지하며, 공격적 작전을 통해 전쟁을 승리고 이끌어야 한다는 공격적 해양전략인 전방전개 해양전략 개념을 구상하였다.

즉, 소련과 미국의 공격과 방이라는 물리적 힘의 메카니즘은, 냉전기

태평양 지역에서의 미국의 힘의 공백에 대한 소련의 인식은 소련으로 하여금 핵심해양공간인 오호츠크해의 방어를 위한 태평양 함대의 증강을 가져왔고, 이러한 안보딜레마에 의한 군비경쟁은 현상유지를 추구하고자 했던 미국의 방어적 해양전략을 공격적으로 전환시켰던 것이다.

21세기 현재 태평양 지역은 해양공간을 통해 미·중 간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다. 미국은 냉전 기간뿐 아니라 태평양 전쟁 기간 중에도 이 지역에서 힘의 공백을 발생시킴으로써 도전국으로 하여금 세력 전이의 희망에 대한 빌미를 마련해 주었다. 이같은 두 번의 경험은 미국으로 하여금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지위 유지를 위해서는 공격적인 해양전략이 유일한 해법이라는 답을 줬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 이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보면 미국은 자신들의 선언만큼 공격적인 해양전략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고 있고, 이것은 곧 중국의 거센 도전의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21세기 태평양 지역에서는 다시 한 번 더 강대국 간 해양지정학적 메카니즘이 작동한 공격과 방어의 균형이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향후 미국은 태평양 지역에서 더 공격적인 해양전략을 추구하려 할 것이고, 중국은 자신들이 한계를 느낄 때까지 군사력을 증강시킬 것이다.

한편 태평양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같은 현상은 한국의 해양전략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주고 있다. 전략은 위협이 존재하고 있을 때 생겨나는 것이다. 현재 한국은 북쪽에서 오는 주적인 북한의 위협, 서·남·동에서 오는 중국과 일본의 잠재적인 위협에 직면해 있다. 즉, 한국은 바다의 관점에서 보면 전방위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다. 한국의 해양전략은 북한의 위협만이 아니라 한국의 전방위 위협을 거부할 수 있는 해군력을 건설하는 것이다. 즉, 한국의 해양전략은 적의 위협으로부터 한국의 핵심해양공간을 보호할 수 있는 공세적 거부전략을 건설하는 것이다.

[원고투고일: 2017. 7. 1, 심사수정일: 2017. 8. 14, 게재확정일: 2017. 8. 21]

주제어: 해양전략, 해양지정학, 핵심해양공간

<abstract>

The Naval Power Competition between The U.S. and Russia of The Pacific in the period of Cold War

- Focused on the Change in the Maritime Geopolitical Recognition -

Jung, Gwang-Ho

In the Pacific region, the mechanism of the power between inter-nation is acted on a maritime geopolitical principle through a crucial maritime sphere. In other words, the mechanism have been operated according to the principles such as the action-reaction, the balance of offense-defense, resulted in the occupying of new challenging power at the vacancies of other power in the pacific region.

Since the mid 1970s, the dominance of the naval forces between the two countries has been reversed due to the arrival of detente according to the reconciliation of the U.S. and China, the rising of a reversal atmosphere following the defeat of the Vietnam War, and the construction of the Soviet navy. In the pacific region, such an U.S. defensive strategy gives the Soviet Union a blank of power recognition in the Asia-Pacific ocean. Based on this recognition, the Soviet Union navy has reinforced a naval power.

The U.S. navy has converted defensive maritime strategy into offensive maritime strategy(sea strike strategy, sea plan 2000) against the Soviet navy's challenge. The U.S. navy argued that a naval force of 600-ships would be needed to maintain a balance with the Soviet navy, take maritime control and have military power projection capability through its forward deployment in the peacetime. the U.S. navy has planed a offensive plan the 'maritime strike strategy' and the 'maritime plan 2000' that denied access to the Soviet navy. In other words, in the pacific region, the mechanism of the physical force of offense and defense in the U.S. and Soviet navy was developed as follows.

The Soviet perception of U.S. powerlessness in the Cold War has brought the Soviet Union to the pacific fleet's increase to defend the crucial maritime sphere in Sea of Okhotsk Sea, and as a result, the U.S. navy has converted

defensive maritime strategy into offensive maritime strategy.

Keywords : maritime strategy, crucial maritime sphere, maritime geopolitics